

'무주 한풍루' 보물 승격 1주년 행사

24일 한풍루 일원에서 무주농악보존회 길놀이·춤 무용단·초청가수 공연 등 진행

'무주 한풍루'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승격 1주년 기념 공연 및 행사가 오는 24일 오후 6시 무주 한풍루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무주 한풍루의 보물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무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농악보존회가 이끄는 길놀이(무주군청~한풍루)부터 춤꽃 무용단의 식전공연과 기념식, 6개 읍·면 결성을 통해 선발전 무주노래꾼들의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진 축하무대에서는 국악인 지유진, 색소폰 연주자 신유식, 가수 진성 초청 공연이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1주년의 기쁨을 배가 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무주 한풍루가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역사와 문화예술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긴다는데 이번 행사 개최의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며 "많은들 오셔서 함께 기뻐해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의 광한루(廣寒樓), 전주 한벽당(寒碧堂)과 함께 호남삼한(三寒)으로 꼽히는 무주 한풍루(寒風樓)는 연면적 155㎡(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누각 팔작지붕 건물이며 조선의 관아건축으로 여러 명사들이 즐겨 찾고 많은 시문을 남겨 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무주 한풍루

1973년부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보호를 받아오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오랜 역사(조선 초 건립)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관아누정'이라는 희소성, △목재의 조각 수법과 입면의 비례 등 건축요소에서 확인되는 예술성과 특이성이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6월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 영동군으로 팔려갔던 누각을 다시 찾아와 세우는 등 문화재를 지키고 전통을 잇고자 했던 무주군민들의 의지 또한 지역을 넘어 존중되고 기념해야 할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일본이 가난해진 시기, 아베노믹스 기간"

신간도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됐다. 일본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떨어져 몇 년 뒤엔 한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 대 명예교수는 책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랩콘스튜디오)에서 구매력이나 박맥 지수, 고도 교육력, 디지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장기 정체 원인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이 가난해진 시기는 아베노믹스 기간이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가를 올려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31년까지 실질 2% 성장을 예측하지만, 이대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경제 성장을 두드러진 한국, 중국, 대만에 밀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경종을 울린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



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높은 성장률이 실현되리라 가정하지만, 저자는 실질 1% 수준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뉴시스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개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제시지회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제시지회(회장 김형기, 이하 한예총)가 지난 18일 시민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총 김제시지회는 오순도순 가족사진 촬영,

나만의 예술작품 생활문화 공예,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 구성과 임현정, 래퍼 수민약국, 김은애, 박영심 등 신명나는 초청공연, 시민참가 공연 기획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코로나19 지옥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감이 높아진 시민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 문화와 예술을 통해 따뜻한 공감과 위

로의 시간이 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형기 회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실천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감성을 해소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용 문화홍보측제실장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 '동네문화추적단' 공유워크숍 가져

2022년 군산시의 예비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 군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동네문화추적단'의 공유워크숍이 지난 16일 개북동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시민 스스로가 우리 동네의 문화를 찾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동네문화추적단은 지난 4월 공모와 심사를 통해 13팀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군산 동네별 역사 및 지역 자산, 일상문화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번 공유워크숍에 참가한 동네문화추적단, 각 팀들은 서로의 활동 경과와 내용을 발표하고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일제강점기 근대 역사에 가려 소외되었던 군산의 마을 문화, 숲 문화, 놀이문화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가치 있는 일상이 시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비로소 재평가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함께 나누었다.

다양한 주제의 동네문화를 추적하고 그 과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중요한 콘텐츠가 될 뿐 아니라, 군산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민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다. 동네문화추적단의 조사 및 활동 내용은 영상,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아카이브로 구축될 예정이다.

2022년 예비문화도시사업 문화공유포럼이 24일 오후 3시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군산 문화공유포럼은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산=김관근기자

'짱깨주의의 탄생' 일주일새 80배 증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희교 교수의 '짱깨주의의 탄생'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은 "오랜만에 책을 추천한다"며 반증 정서를 조망한 이 책을 소개했다. 그는 책 소개와 함께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예스24에 따르면 9일 문 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책의 판매량은 전주 대비 83배나 상승하며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 셀러' 효과를 봤다. 책이 출간된 지난 4월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간의 판매량보다도 일주일 새 판매량이 8.7배나 높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교보문고 주간 역사·문화 분야 10위, 예스24 역사 분야 주간 판매량 1위 등을 기록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사피엔스', '오늘부터의 세계', '리더라면 정조처럼', '홍범도 평전' 등 4권의 책을 소개했다. 당시 책 판매량은 최저 225%에서 최고 1280%까지 늘었다.



2017년 여름휴가 당시 '명견만리' 시리즈를 읽고 있다는 언급 후에는 해당 책의 판매량이 전주 동기 대비 1700%에서 2638%까지 늘었다. 2016년 2월 설 연휴 때 알린 '사랑할까, 먹을까'는 판매량이 1733%나 증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